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부산항' 제11회 부산항축제 개최

5월 25일-27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및 해양박물관 일원. 3종 11개 프로그램 구성

부산항의 역사와 문화, 미래가 있는 부산의 대표 항만축제인 '부산항축제'가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부산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및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부산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부산항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으며,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3일 동안 총 10만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개막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3종 11개 프로그램을 즐기고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부산항과 선박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다.

먼저 개막식이 열린 25일에는 개막 세레모니 및 주제공연과 함께 부산항의 야경과 함께 18분간 개막 축하 불꽃쇼를 연출했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부산항을 주제로 한 개막식을 다양하게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부산항축제 특유의 주제공연을 연출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활용한 특색있는 무대를 설치했으며, 부산항을 담은 영상 맵핑 및 퍼포먼스 공연 등 총체극 형태의 공연도 진행됐다. 또한 부산시 소재 수제맥주 5개 업체,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창업 푸드트럭 15개 업체 등이 북항 광장 내에서 '부산항 비어가르텐' 행사를 개최해 부산항 야경을 보며 다양한 수제맥주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광경이 마련됐다.

이어 2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체험행사는 △부산항투어 △부산항 스탬프 투어(9개코스) △선박 공개 행사 △해양레저체험 △ 각종 체험존 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산항투어는 영도 해경부두를 출항해 부산



항 일대를 돌고 다시 해경부두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해군함정 1척과 어업지도선 '201' 호, 부산항 항만안 내선인 '새누리' 호 등 3척이 투입됐다. 해군함정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항차당 400명의 관람객이 승선했으며, 201호는 양일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각각 40명의 관람객이 탑승해 1시간일정으로 부산항을 둘러보았다. 새누리호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간격으로 회당 60여명의 승객에게 부산항의 모습을 제공했다.

부산항 스탬프투어는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교육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 영도 해양클러스터 내 기관들을 둘러보며 각 기관의 스탬프를 날린 후 돌아오면 기념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각 기관에는 바다 역사인물 포토존, 조파수조/방재장비 체험, 해양영토 조사체험전, 독도 사진전 등에서 숨은 미션을 수행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해군과 해경의 대형함정을 직접 승선하는 함정 공개행사와 함께 한국해양대학 선착장 일원에서는 요트, 모터보트, 미니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모형배 만들기 체험, 대형 연날리기 시연,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워터볼 및 페달보트 등 이색적인 해양레저 및 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열렸다.

한편 부대행사로 새롭게 선보이는 ‘낭만 가득 海 콘서트’는 부산항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형 콘서트로 아미르공원 잔디밭에서 열렸으며, 가수 치즈, 유승우, 반다, 해피피플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26일과 27일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는 △페달보트 및 모형배 만들기 체험 △바다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119 안전체험 및 소방정 오색살수 시연 △해녀 문화체험 △해양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BPA, ‘바다사랑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해양연맹은 공동으로 제23회 바다의 날과 제11회 부산항축제를 기념하여 5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 국립 해양박물관 잔디밭에서 ‘바다사랑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인 동 대회는 부산항과 바다를 주제로 한 문예창작활동을 통해 바다의 중요성 및 부산항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유치원생(어린이집원생) 및 초등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바다사랑, 해양환경 및 부산항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상작



은 6월 1일 전후로 발표된다. 입상자에게는 부산시장상, 부산시교육감상, 부산항만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거북선 모형, 키자니아 할인권 등 쿠폰북 등)이 제공된다.

해운조합, 무의도 섬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한국해운조합이 제23회 바다의 날 및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맞아 5월 25일 인천 무의도 선착장 주변 해변가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춘계 체육행사와 병행된 이번 정화활동은 조합 본부 전직원 70여명이 참석해 어업활동 잔해인 폐어망, 로프, 통발을 비롯해 조류를 타고 밀려 온 페스트로폼,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 등을 대량 수거했다.



‘배타고! 신나고! 렛잇고!’ 2018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6일부터 9일간 전곡항·제부도 일원, 개막당일 7만 2천여명 운집

경기도의 대표해양관광 행사인 '2018 화성 뱃놀이 축제'가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화성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펼쳐졌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재)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2018 경기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곡항에서만 진행되던 행사를 제부도까지 범위를 확장했으며, 행사기간도 4일에서 9일로 늘리면서 프로그램도 한 층 더 다양해졌다.

이번 행사는 요·보트를 포함해 총 66척의 선박과 승선체험과 제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배타고 ZONE'을 비롯해 지역방송 및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신나고 ZONE', 시민참여행사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는 '렛잇고 ZONE' 등 40여가지의 다양한 육·해상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개막 당일에는 7만 2,000여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이튿날인 27일 역시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누적 방문객 수는 19만 4,000여명을 달성했다.

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승선체험이 진행된 '배타고 ZONE'에서는 '크루즈요트 체험'과 2개의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선체를 나란히 늘어놓고 상부에는 두 선체를 연결하는 부목으로 동여맨 뗏목형식의 '고급요트 체험', 보는것만으로도 상쾌하고 충알처럼 빠른 속도의 '파워보트 체험',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낚시어선 체험', 여객선으로 서해바다를 즐길 수 있는 '유람선 및 황포돛배 체험'과 선상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비너스 대형 유람선 승선 체험' 등으로 구성돼 평소 즐기기 힘들었던 각종 레저선박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자리로 마련됐다. '신나고 ZONE'에서는 무대공연과 버스킹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 개막날인 26일에는 지역방송의 공개 특집방송에서 K팝 가수들의 무대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해변



의장대와 군악대의 개막행사와 미술공연 등으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렛잇고 ZONE'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육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에어바운스 서핑보드 △인플렛슈즈 △수중범퍼카 △어린이 페달보트 △어린이 낚시터 △35m롱슬라이드 △어린이 수영장 등의 프로그램이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으며, 특히 해상에서 40여척의 배들이 펼치는 해상퍼레이드는 해경 기함 도열과 함께 드론으로 LTE 생중계되면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환상의 섬 제부도까지 행사장이 확장됐다. 제부도와 전곡항을 왕복하는 셔틀선이 일일 8회 운행됐으며, 제부도 연안을 즐길 수 있는 제부페리호 유람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제부도에서는 △동탄예술시장 in 제부도 △바지락 캐기 체험 △전곡남녀 비치발리볼 대회 △경기만에코뮤지엄 제부도 아트파크 소확행 콘서트 △제부도 아트파크 기획전시 '떠오르는 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의 연계행사로 진행된 '제2회 화성 서해안컵 전국요트대회'는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전곡항 마리아 및 인근수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80척 400여명의 선수가 크루즈 레이스, 딩기 레이스 등의 경기를 펼쳐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등대올림픽 ‘2018 세계등대총회’, 인천 송도서 개최

항로표지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이자 등대올림픽인 ‘2018 세계등대총회(제19차 IALA 컨퍼런스)’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IALA 컨퍼런스는 총회와 이사회, 항로표지 기술세션, 항로표지 산업전시회 등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세계 항로표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분야의 신기술을 홍보·공유하는 자리로 19회째를 맞은 올해 총회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 △ 하나 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69개 회원국가, 국내외 산·학·연 항로표지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항로표지분야 신기술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기본 프로그램으로 △항로표지 국제 기술표준 제·개정 등 승인을 위한 이사회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신기술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및 우수논문 경진대회 △세계 항로표지기업 산업전시회 등이 열렸다.

산업전시회에서는 47개 글로벌 항로표지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해 항로표지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장비를 선보였다. 우리나라도 국가관을 마련해 해상에서의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e-네비게이션과 독자 항법시스템인 e로란 등의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학술대회’ 에에서는 항로표지 위험관리, 가상항로표지, 해상교통관제서비스 등 11개 분야 93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항로표지분야의 사물인터넷 적용 사례, 차세대 이동통신과 해양분야 융합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도 소개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최초로 개최지역명을 딴 선언인 ‘인천선언’이 채택됐다. 인천선언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등대를 통해 해양문



화를 지키고 확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기존과 달리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세상을 바꾼 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등대유물전시회에서는 회원국들이 기증한 항로표지와 관련한 유물과 전시품 등이 전시돼 등대역사와 광학 및 건축학 발전사, 등대원의 생활, 등대와 관련된 예술작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외국의 항로표지 전문가와 공지영 작가 등 국내 저명인사들의 다양한 등대관련 지식, 등대 문화·예술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등대토크콘서트’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열려 관람객들이 등대에 담긴 의미에 한 층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한 총회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항로표지선, 해경함정에 관람객이 직접 승선해 선박의 기능과 탑재된 시설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국가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18 경기국제보트쇼'

5월 24일-27일, 킨텍스·김포 아라마리나, 270개 업체, 1,700여개 부스, 20척 요·보트 전시

해양 레저산업 분야의 최신정보 및 트렌드를 가늠해보고 풍성한 체험 및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이자 국가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3대 보트쇼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수도권 내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마리나산업 전문 전시회로,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5월에 선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특)한국마리나협회, (주)킨텍스,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7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육상전시가 진행된 킨텍스 전시장에 1,705개 부스가 마련됐고 해상전시가 이뤄진 아라마리나에는 약 20척의 보트가 전시됐다. 5월 24일 오후 개막행사에는 김진홍 경기도 행정부지사,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임창렬 킨텍스 대표이사, 줄리 발자노 미국해양협회(NMMA) 이사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양레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진홍 부지사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인프라와 소비시장을 보유한 곳"이라며 "앞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총 3만 5,000㎡ 규모, 4개홀로 구성된 육상 전시회는 △요트&보트전 △스포츠피싱쇼 △한국다이빙엑스포 △아웃도어·캠핑카쇼 △무동력보트전 △워터스포츠쇼 △해양부품, 안전&마리나산업전 등 7개 섹션으로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레저기구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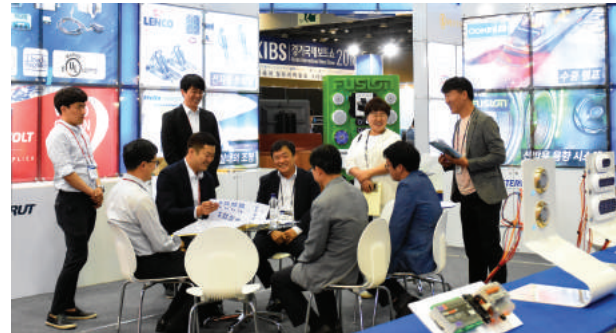
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개막날인 24일에는 경기씨그랜트센터의 주관으로 관람객들에게 심폐소생술, 조난 응급신호, 해양생물 퍼즐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가평소방서 부스에서는 직접 선박에 승선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또한 사진전 부스에는 카약사진과 수중사진, 제주해녀의 다이빙 사진을 전시했으며, 원형이벤트폴장에서는 수중드론 및 RC레이싱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대한위터스포츠협회에서 직접 현장관람객을 대상으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해 실내에서 다이빙하는 광경을 자아냈으며, 마린룩패션쇼, 참다랑어 대뱃살 해체쇼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더불어 온라인을 활용한 해양레저

프로그램 시연도 진행됐다. 한편 두터운 해양레저 마니아층을 보유한 최운정 프로가 직접 보트쇼에 참여해 전시된 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낚시와 해상 필라테스 등 일반인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레저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전시 프로그램 외에도 킨텍스 전시관에서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올해의 제품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는 20개국 126개사가 방한했으며, 북미 최대 해양레저용품 유통사인 ‘오션 마케팅(Ocean Marketing)’사의 존 톰맨(John Thommen) 사장을 비롯한 유럽, 동남아의 유명 바이어들이 국내 레저선박 제조사를 상대로 수출 및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주)제일진공펌프’는 이번 경기국제보트쇼 수출상담회를 통해 스웨덴 해수펌프 제조/유통사 Albin Pump Marine와 10만불 상당의 MOU 체결에 합의했으며, 해양안전용품 전문 제조업체 ‘해강마린’은 모잠비크 정부에 구멍조끼 등의 수출을 성사시켰다. 부품뿐만 아니라 국내제조 완제품에 대한 인기도 매우 높았다. 부산에서 보트를 제작하는 ‘한국컴포짓’은 전시 첫째날부터 웨이크보드용 보트를 현장에서 판매했다. 또한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보트쇼 공식협찬사인 ‘보트코리아’는 신제품 ‘Shadow’ 시리즈 고무보트를 중심으로 출품한 수습적의 피싱보트를 현장에서 완판하는 등 다시 한 번 마린업계의 절대 강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밖에 알로이마린, 보트24, 로그보트 등 경기도 대표 보트기업들 또한 보트쇼에 출품한 대부분의 보트를 팔아치우며 대기예약까지 받는 등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개막 당일 오후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열리는 ‘마리나산업 육성 협의회’에서 해양레저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레저선박의 안전한 운항지원을 위한 설비기준과 입출항 관리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이후 ‘해양레저&마리나산업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



련됐다. 26일에는 요트스테이를 운영하는 ‘요트탈레’社 대표인 김건우씨가 연사로 나와 ‘마리나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콘텐츠 개발방안’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한편 2만 5,400㎡ 부지에서 해상전시가 진행된 아라마리나에서는 국내외 보트 및 요트 20여척을 활용해 그간 내륙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해양레저 체험기회가 적었던 경기·수도권 시민에게 다양한 해양제러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전시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매 2시간마다 선착순 접수를 통해 요트 세일링과 보트 투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으며, 경기 아라뱃길 유람선의 경우 평소 이용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4,000원에 뱃길 투어를 즐길 수 있는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26일과 27일에는 수상레저 체험장에서 카약, 수상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25일에는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기국제보트쇼 사생대회’가 열렸다. 특히 26일에는 209일간 요트만으로 무기항 세계일주를 한 김승진 선장이 요트 입문자와 관련 동호인을 대상으로 세일링 체험행사를 진행해 요트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샀다.

보트쇼와 함께 진행된 올해의 제품상 시상식에서 기술부문(부품)에 (주)지노스, 개선도부문에 디텍 주식회사, 아이디어 부문에 (주)성동마린, 시장성(완제품) 부문에 세양마리녹스, 선진정공주식회사가 각각 선정됐으며, 시장성(부품) 부문에는 대동마린테크사가 수상했다.

울산해수청, '간절곶등대 콘서트' '열린바다학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절곶등대 콘서트' 공연이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간절곶등대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제19차 IALA 컨퍼런스 성공개최 기원' 및 '제23회 바다의 날' 을 기념해 간절곶등대를 찾는 국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서비스 제공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하고 울산문화예술회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발전 유도 및 해양문화 르네상스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울산시립무동단 30여명이 출연해 국악 관현악, 창작 무용, 국악가요, 악기놀이 등의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외에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및 타로점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진행됐으며, 공연 후 경품행사를 통해 등대 1박 2일 체험 숙박권, 해랑이 인형, 우산 등 기념품 등을 지급했다.

한편 울산해수청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울산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바다학교' 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해양시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을 통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해양사상 고취하고 현장견



학을 통한 생생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주간 총 3번에 걸쳐 진행된 동 프로그램의 견학코스는 '고래문화박물관 - 해상교통관제센터 - 현대자동차' 로 이어지는 1코스와 '울산항만공사 - 고래연구센터 - S-OIL(주)' 로 이어지는 2코스, '해양환경공단 - 울산항만공사 - 현대중공업(주)' 로 이어지는 3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울산해수청 직원을 포함해, 고래연구소 연구사, 고래문화마을 문화해설사, 견학 산업체 직원이 교육강사로 나섰다.

한편 이번 행사를 체험한 학생은 18학급 총 630여명의 초등학생이 동 과정을 이수했다.

한해총, 바다의 날 마라톤 성료

5월 26일 서울 여의도 너른들판 일대에서 '제23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가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 외국인 등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해운신문이 주최한 이번 대회 개최식에는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 정유섭 국회의원,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 풀코스 남자 우승은 2시간 43분 14.10초를 기록한



JOEL KIMARU씨가 차지했으며, 여자부 우승은 3시간 28분 18.64초를 기록한 김영민씨가 차지했다.

인천해수청, ‘해안가 청소 및 지역 음악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경인방송이 5월 31일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컨퍼런스'와 바다의 날을 기념해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에서 지역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경인방송 ifm '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DJ로 활약 중인 가수 백영규 씨를 비롯해 총 4팀이 출연하여 포크, 대중가요, 성악 등으로 구성되며 약 50분간 공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을 맞아 지정한 '해양정화주간' 기간 동안 인천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지역은 23개 소에서 NGO, 지역주민·학생, 자치단체 등 140여개 유관기관, 업·단체 1,400여 명이 참여해 주요 항·포구, 해변가는 물론 평상시 접근이 어려운 도서 주변에서도 해양쓰레기 수거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5월 29일 인천 영종도 마시안해변과 남단호안에서 인천해수청, 인천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심으로 66개 업·단체 약 400여명이 참여해 어업활동 잔해인 페어망, 로프를 비롯해 조류를 타고 밀려온 페스티로폼, 폐플라스틱병 등 해양쓰레



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외에도 도서지역이나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운 군작전 지역 등 평소 상대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소홀했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러한 활동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정해 해양정화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바다환경 보호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해양박물관, 바다의 날 기념 ‘해양문화행사’

국립해양박물관이 제23회 바다의날 기념 바다주간을 맞아 전시·교육·체험 등 박물관에서만 체험 가능한 문화행사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했다.

30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베트남 해역에서 발견된 5척 난파선에서 출수된 아시아 도자기를 소개하는 '대항해시대, 바닷길에서 만난 아시아도자기' 전시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직접 기획의도와 전시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진행했다. 또한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보인 '모아나', '바다탐험대 옥토넷' 등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 맞춘 해양교육이 이뤄졌



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 관람객을 위해 29일에는 해양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토크 콘서트가, 31일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나전칠기를 통해 해양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해양공예교실이 각각 운영됐다.

부산해수청, 미니카약 및 모형배 만들기 체험

부산해양지방수산청이 '제23회 바다의 날' 과 '제11회 부산항 축제' 를 기념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이틀간 한국해양대학교 제2캠퍼스 앞 친수호안과 국립해양박물관 인근 잔디밭에서 개최했다.

미니카약체험은 지난해 664명이 참여한 대표적 해양체험 프로그램으로 5월 26일부터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 참석해 평소에 접하지 못한 카약체험을 즐겼다. 이날 약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안전관리자로부터 교육홍보사항 및 해상기상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안전선, 안전용구 등의 장비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수상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한 후 본격적인 카약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현장 참관객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카약체험 1시간 전까지 현장 접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위탁운영 받은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교육외에도 체험장 안전선 2척, 인명구조요원 2명, 안전요원 2명을 곳곳에 배치했으며, 참가자가 체험 중 경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 중간에 부표도 설치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보험 적용 및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시켰으며, 자동 제세동기를 포함한 응급처치 용품 및 구급약품을 비치해 참가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해양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된 모형배 만들기 행사에는 약 2,000여명의 방문객이 참석해 아라온호, 조선통신사선 등 해양사적으로 의미있는 선박의 모형을 만들어보고 우리 선박의 우수성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 행사는 당일 배포하는 예약권을 통해 참관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 26일부터 양일간 회차당 50분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해양조사원, '스탬프 투어' '열린 해양교실'

국립해양조사원이 부산항 축제기간인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 스탬프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양영토 체험전을 개최하고 스탬프투어 참가자 및 일반시민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별관 2층에서 동해독도관, 해양조사홍보관, 해양정보산업가상체험관 등의 전시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5월 31일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해양교실' 을 운영하고 조사원 소개, 홍보 동영상 시청,



신기한 바다이야기 강의 및 해양조사 체험전시관 관람 및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여수해수청, 해양정화활동 · 등대문화 행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바다의 날을 맞이해 5월 29일과 31일 양일간 여수항 일대에서 해양정화활동을 펼쳤다. 29일 여수신항 북방과제 일원에서 진행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는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를 포함해 여수시, 여수해경,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운조합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북방과제 외측 사석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31일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배알도 주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여수해수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5월 26일 여수해양공원 및 하멜등대 일원에서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바다사생대전이 개최됐다. (사)한국미술협회여수지부가 주최하고 전국바다사생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바다사생을 주제로 캔버스 10-20호 이내 규격으로 수채화, 유화, 한국화(수묵, 채색)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냅킨아트, 전통부채 만들기, 물레체험, 가훈쓰기 등 '바다체험 부스' 4개소



를 운영해 다채로운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같은날 오동도등대 야외무대에서는 '제1회 오동도등대 예술제'가 해양수산부, 여수해수청, 향로표지기술협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오동도등대 예술제 '봄날의 하모니'를 주제로 사물놀이, 색소폰, K팝 댄스, 트로트 가요, 하모니카 연주, 오카리나 연주 등의 연주행사가 펼쳐졌다.

동해해수청, 바다사랑 어린이 사생대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제23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동해시 묵호등대에서 '바다사랑 어린이 사생대회'를 5월 26일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해양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등대를 통해 바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의 시상내역으로 △대상(1명)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장학금 30만원 △최우수상(2명) 강원도교육감상 및 장학금 10만원 △우수상(10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상 및 장학금 5만원 △장려상(20명) 한



국향로표지기술원장상 및 장학금 3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시상식은 6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강당에서 시행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부모가정 자녀대상 '카약 체험교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가정형편 상 해양레저 체험기회가 적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5월 19일 부산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카약 체험교실'을 개최했다.

개발원과 부산 기장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부모 가정 10명을 포함해 지역 청소년 20명 등 총 30여명의 학생에게 심폐소생술 및 해양안전교육, 카약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학생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량이 이번 행사의 만족을 표시했으며, 참가자 대부분이 안전교육 및 카약체험에 적극적이고 즐거워했으나 짧은 교육일정을 향후 확대한다는 의견을 내비기도 했다고 개발원은 밝혔다.

한편 동 개발원은 이번 행사의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카약체험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의 해양레저 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해수청, 청소년 해양교육 '서해바다학교' 운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자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교육 행사인 '서해바다학교' 프로그램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평택·당진항 인근 산업체에서 개최했다.

이번 서해바다학교 행사는 관내 초중고 9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5월 29일과 6월 5일현화초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인근 기아자동차, 합상공원을 방문해 해양항만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무궁한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밑거름을 제공했다. 이어 6월 1일에는 지장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한국가스공사, 평택항홍보관, 평



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초청해 실시간 관제현장을 직접보고 관제사와 직접 교신할 수 있는 체험 기회도 가졌다. 또한 홍보관 고층 전망대에서 드넓은 바다와 평택·당진항을 오가는 선박 및 선적 화물을 한 눈에 내려다보며 경치를 만끽했다.

마산해수청, '내륙 청소년 등대체험 행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14일 내륙지역의 바다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거창 셋별중학교 학생 48명 등을 대상으로 '소매물도등대 1일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별중학교 학생들을 소매물도 등대섬에 초청하여 경남지역의 아름다운 섬과 등대를 직접 체험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소매물도등대 1일 체험'을 통하여 바다에서의 등대 역할, 등대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과 바다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키워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목포해수청,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활동 추진

목포해수청이 제23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깨끗하고 쾌적한 목포항을 만들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활동을 5월 25일 목포 허사도 및 해군3함대 활주로 인근에서 진행했다.

목포해수청을 포함해 해군3함대,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시, 해양환경공단, 목포수협, 현대삼호중공업, 지역 어촌계 등 약 200여명이 이날 정화활동에 참가했으며, 신항교 인접지역인 허사도 해안가의 쓰레기는 전 기관이 참가해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으며, 해군3함대 지역은 군사시설을 고려해 해군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진행한 후 모아진 쓰레기는 목포해수청이 별도로 처리했다. 목포해수청은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접근이 곤란한 해안가 및 무인도서 등 평소 수거가 곤란한 지역의 쓰레기 수거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해안](#)